

#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신청서 교육부 제출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부터 공동추진위원회 심의, 대학별 내부 관련 심의를 거쳐 12월31일 교육부에 가칭 '국립한국제일대학교' 이름으로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6년 3월 통합대학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대학은 지난해 11월15일 대학 통합, 통합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한

뒤 공동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준비해 왔다.

대학 통합 신청서에는 통합 목적과 기대 효과가 담겼다. 각 지역의 장점과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생명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대학통합 신청서는 전남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

## 가칭 '국립한국제일대학교' 의대·병원 설립 추진

### 김지사 환영문...정부 의대 신설 약속 이행 촉구

과대학 신설이라는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대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을 지지해준 학내 구성원, 동문, 지역 사회 등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병은 순천대 총장도 "통합을 통해 탄생할 초글로벌대학은 지역과 함께 성

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을 확보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특화된 통합 의과대학, 대학병원을 설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에 국립의대 신설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지역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담은 대학 통합과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의 30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실현시킬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통합대학교가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동·서부에 신설 대학병원 설립도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1도 1국립대학 선도 모델인 대학 통합과 정부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때"라며 "전남도는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이 완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나주 남평과 화순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나주 남평-화순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지난달 30일 마무리돼 전면 개통했다. <전남도 제공>

## 나주 남평-화순 국지도 확포장 개통

전남도, 1천256억 투입...4차선 6.85km 연장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나주 남평-화순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다.

공사에는 총사업비 1천256억원이 투입됐으며 전체 연장 6.85km, 4차선으로 넓어지고 안전한 도로로 탈바꿈했다.

7개 교량과 1개 터널을 설치해 도로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만들었다.

나주 남평과 화순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도로 개통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주민은 "이제 남평에서 화순까지

가는 길이 훨씬 빨라질 뿐 아니라 도로가 넓고 안전해서 걱정 없이 이동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도 "교통 여건이 좋아져 지역 특산물 판매와 관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평-화순 간 국지도 5호선 개통은 단순히 도로를 잇는 것을 넘어 지역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하남·평동·침단산 단

### 서틀버스 운행 재개

광주시가 2일부터 하남·평동·침단 산

업단지의 서틀버스 운영을 재개한다. 광주시는 버스 8대를 투입해 33km(10만평)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인 하남·평동·침단산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출·퇴근 각 2회씩 서틀버스를 운행한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지원 사업으로 서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변은진기자

# 광주시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첫 도입

## 소상공인 아이돌봄·1인 여성자영업자 대체인력비 지원

광주시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휴일·야간 영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와 '1인 여성자영업자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1자녀 기준 총 300만원(1개월 당 60만원, 6개월 간), 2자녀 기준 총 540만원(1개월 당 90만원, 6개월 간) 한도 내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아동 양육자는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여명이다.

'1인 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 확인 때부터 출산 후(6개월 이내)까지 총 300만원(1개월 당 100만원, 3개월 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50명이다.

소상공인은 고급리·고물가·고환율 3중고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저출생 정책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로 출산·양육 지원에서 소외됐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공지사항)과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1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전남, 뱀 관련 지명 전국 최다

### 고흥 사도·광양 금골마을·순천 구룡마을 등 42곳

전남도는 1일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 해를 맞아 전국 30만여개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뱀 관련 지명은 총 210여 개이며 이중 전남이 4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뱀 지명은 종류별로 마을이 27개, 계곡·섬이 각 5개, 산 3개, 골짜기 2개다.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6개, 광양시가 5개, 여수시·보성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각 3개, 나주시·구례군·진도군

·신안군 각 2개 등이다. 뱀 관련 지명 중 뱀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뱀처럼 긴 모양의 섬으로 '장사도',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골' 등이 있다.

뱀의 모양을 묘사한 지명 중 뱀이 개구리를 쫓아가는 지명인 '장사추와형(長蛇追蛙形)'은 먹을 것이 풍부한 좋은 터로 풍수지리가들이 일컫는 명당의 하나다.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의 사도가 해당된다.

지형이 뱀형이며 마을 앞에 와도라는 섬이 있어 뱀이 개구리를 잡기 위해 건너가는 모습이라 한다.

광양 곽약동 금골마을은 지형이 금뱀이 엮여 숨어 있는 '금사복지혈(金巳伏池穴)'로 금곡이라 부른다. 풍수지리학자들은 이곳 또한 명당으로 일컫는다.

순천 서면 지분리 구룡마을은 마을 뒷산의 산맥이 뱀과 같고 아홉개의 산맥이 있어 사구실로 부르다가 이후 구룡이라 바뀌 부르고 있다.

고시된 지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지명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시원기자

푸른뱀의 해, 을사년 2025

2025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2025년  
풍요로운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 www.dreamkorea.biz